

북한이탈주민 대상 기독교 사회복지 사역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A Grounded Theory Study on the Ministry Experience of Christian Social Welfare for North Korean Refugees

김주경 (Jookyung Kim)**

손병덕 (Byoungduk Sohn)***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losely examine the ministry experiences of ministers practicing Christian social welfare for North Korean refugees.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grounded theory research method proposed by Strauss & Corbin (1998). The study participants included 16 ministers currently practicing Christian social welfare for North Korean refugees. The collection of research data was organized through 1:1 in-depth interviews, and analysis was performed in the order of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The ministry experience process of the study participants was changed into a ministry start stage, a stage of disappointment and exhaustion, a stage of re-illumination, a stage of recharging, and a stage of growth and sanctification.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collective exclusion experienced by North Korean refugees and ministers, the support of colleagues and communities, the finance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ministry, a support for the ministry, and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ere discussed, proposing a practical suggestion on Christian social welfare.

Key words: North Korean refugees, Christian social welfare, ministers, ministry experience, grounded theory study

* 2022년 8월 11일 접수, 9월 7일 최종수정, 9월 7일 게재확정. 본 논문은 저자의 2021년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논문임.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신학과 기독교사회복지학전공 박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jookyung858@hanmail.net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교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bdsohn@csu.ac.kr

1.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계속 증가해왔다. 통일부(2020)에 따르면,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33,670명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입국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연간 3,000명 가까이 되었으며, 2012년을 기점으로 입국자 수가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매년 1,000여명 이상이 꾸준히 입국해왔다. 2019년까지 그야말로 21세기 네오-엑소더스(Neo-Exodus)라 할 정도로(양민숙, 2018)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이 이어졌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가 자신들의 꿈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국내에 입국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제공, 취업 알선, 학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일부는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공사 등과 협조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원활하게 주택을 알선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정부는「내일 배움 카드제」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자유롭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면제받는다. 북한이탈주민을 돕기 위한 민간단체의 지원도 다양하다. 지역복지관이나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상담, 교육, 주민교류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통일부, 2020). 이러한 정책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통일부에서는 2019년 북한이탈주민 28,652명 중 표본 3,000명을 대상으로 정착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74.2%가 ‘남한생활에 만족함’이라고 답변을 했으나, 주요 정착지표는 일반 국민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1997년에 법으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중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재북 당시 중고등학교 졸업자가 70% 정도이고 직업은 무직·부양과 노동자가 88%를 차지하고 있으며(조영기 외, 2011), 남북 통합 학력은 중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66.2%이다(남북하나재단, 2019). 따라서 남한 사회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으며, 단순 노동직과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늘 고용불안이 있고 이직이 잦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로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한사회의 부정적인 시선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시선은 ‘동포’, ‘한민족’, ‘북한 사람’,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또는 ‘도움이 필요한 자’, ‘남한 사람과 다른 사람’, ‘친밀하지만 가족으로 맞이하기는 어려운 자’ 등 수많은 정체성으로 입혀지고 있다. 이것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종종 그들로 하여금 다른 국가로 이동하게 만들기도 한다(전주람·신윤정, 2018).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면 언어의 이질성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서의 외래어 사용, 한자어의 상용화 등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그중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일상용어에 영어가 섞여 있는 외래어에 대한 것이다(정인수, 2009). 이 외에도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 가치관의 혼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이주민은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Bemark, et. al., 2003 ; Yeh, 2003 ; Nwadiora & McAdoo, 1996).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자살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연도별 자살률을 살펴보면 2016년 7.95%, 2017년 8.78%, 2018년 15.47%으로 치솟았다(통일부, 2019). 또한 국가인권위원회(2022)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대표적 정신건강 문제로서 진료가 필요한 집단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임상군이 56%에 달하고, 자살 고위험군도 25%에 이르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10명 중 1명이 자살하여 일반 국민 자살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은 험한 사회적 장정(양민숙, 2018)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다른 요소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안석(2018)은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두고 온 부모 형제 때문에 항상 죄책감과 괴로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가족과 같은 역할을 해 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혜경(2015)은 북한에서 대체 종교 역할을 하고 있는 주체사상을 통해 형성된 북한이탈주민의 이념을 해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제안한다. 북한이탈주민과 오랜 시간 함께 해 온 이빌립(2017)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상담자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며,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그대로 인정해 주고, 우리와 동등한 인격임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남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공감의 가장 좋은 롤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공감 능력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눈물을 흘렸다는 부분이 있는데(눅 19:41, 요 11:35, 히 5:7), 예수 그리스도는 아파하는 이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축복해 주었다. 북한이탈주민은 힘든 탈북과정을 통해 대부분

몸과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은 상태로 국내에 입국한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들의 아픔을 먼저 공감해 주는 일일 것이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상황과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독교 사회복지¹⁾를 실천해 오고 있는 교회나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 몇몇 대형교회와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사역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교회와 선교단체, 민간단체 등으로 점점 확산되었다. 이러한 교회와 단체에 속한 사역자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들을 진정으로 공감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 자녀교육, 취업, 장학지원 등 다방면에서 그들의 남한 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또한 예배, 제자훈련 등의 신앙교육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며 영적인 성장도 돕고 있다. 사역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함께 신앙교육을 병행하면서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동시에 채워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육적 구원과 영적 구원이 있는 전인 구원(이재서, 2013)을 추구하는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은 폐쇄적이고 억압받는 북한 사회의 생활과 탈북과정에서 경험했던 고난으로 상처가 많아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며, 그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오고 있다. 북한이탈여성과 남성,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의 대부분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의 적응과 정착에 관한 연구들(백남철, 2018 ; 조민희, 2019 등)과 정착지원에 관한 연구들(최은석, 2018 ; 한명진, 2020 등)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취업과 직업에 관한 연구들(신문희, 2020 등)도 진행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복지정책과 관련된 연구(이상주, 2016),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안상훈, 2020)도 이루어졌다. 북한이탈주민과 기독교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에는 한국교회의 과제와 역할에 대한 연구(고재길, 2017), 한국교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는 연구(이지성, 2019) 등이 진행되었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남한 사회 적응, 정착과 관련된 연구이며, 기독교와 관련해서는 선교와 통일준비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다. 연구의 대상은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이며 기

1) 기독교 사회복지란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원리와 정신에 따라 인간의 삶이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영위되도록 도모하는 모든 노력이며 이는 기독교에 의해 전개되는 사랑실천, 사회봉사, 구제사업, 교회사회사업 등 모든 유사 개념들을 다 포함한 의미이다(이재서, 2013).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국내정착 사역, 돌봄 사역, 일자리 사역 등의 유형이 포함되었다.

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역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경의 가르침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역자의 사역경험을 들여다봄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 치유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과 정착과정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사역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개선과 사회 인식 개선 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현장과 사역자에 대한 교회와 교계의 이해와 지원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역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며,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를 비롯하여 교회의 모든 일반 성도도 포함된다(교회용어사전, 2013). 기독교 사회복지 사역자란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 북한선교 전문 간사, 북한선교 전문 목회자 사모로 일반 성도와 구분되는 사역자로 사역자의 범위를 한정한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역자의 경험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역자의 경험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기독교 사회복지 사역자의 경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맥락을 이해하고자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Glaser & Strauss(1967)가 언급한대로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그 사회 구성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이해하고, 그 결과를 하나의 이론적 구조로 정리 및 제시하며, 이렇게 도출된 이론은 다시 삶의 현상을 이해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이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기독교 사회복지를 펼치는 사역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을 들여다봄으로써 기독교 사회복지 사역경험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고 사역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근거이론 연구방법이 본 연구의 특성과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사역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기 위해 ‘비확률표본추출’(nonprobability sampling) 방법 중 ‘유의표본추출’(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유의표본추출 방법은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해 줄 수 있다고 여기는, 즉 대표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손병덕 외, 2010).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역자의 사역경험에 대한 연구로써 사역자의 범위가 넓고 광범위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첫째,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하고 있는 사역자로서 최소 3년 이상 북한이탈주민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한국 교계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교회나 단체에 속한 목사, 전도사, 선교사, 북한선교 전문 간사, 북한선교 전문 목회자 사모로 일반 성도와는 구분되는 사역자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사역의 형태(종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기독교 사회복지 사역의 종류를 포함한다. 또한 표집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등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 및 간사와 선교사로부터 17명의 사역자를 추천받았으며 본 연구의 선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16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60대가 4명, 50대가 3명, 40대가 5명, 30대가 4명으로 평균 연령이 50세이다. 대부분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학력 수준이 높은 편이다. 사역을 한 기간은 3년부터 25년까지이다. 사역의 형태는 국내정착 사역, 돌봄 사역, 학사운영 사역, NGO 사역, 아동센터, 일자리 사역 등이다. 국내정착 사역은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여 정부 기관에서 일정기간 사회응교육을 받고 주거, 취업,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민간의 지원을 받아 정착하도록 돕는 사역이며, 돌봄 사역은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에 직접 찾아가거나 함께 거주하면서 가족처럼 돌보거나 공공시설, 대중교통 이용 등 소소한 모든 일상을 도우며 남한 사회 적응을 돕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학사운영 사역은 탈북청년과 탈북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사역을 말한다. NGO 사역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연결하여 탈북청년들과 남한 청년들의 만남의 장을 가지도록 돕거나, 병원과 연결하여 북한이탈주민 전문 상담이나 질병 치료와 같은 의료지원을 돕는 등 재단이나 기관과 연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적응과 정착을 돕는 사역이다. 그 외 아동센터나 아동양육시설은 기존의 사회복지 아동센터 혹은 시설과 유사하며 대상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라는 차이점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돕는 일자리 사역도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만)	직업	학력	사역 기간	사역 형태
연구 참여자 1	여	65세	선교사	대학원졸	20년	학사운영, 돌봄 사역
연구 참여자 2	남	63세	선교사	대학원졸	11년	국내정착 사역, 돌봄 사역
연구 참여자 3	남	50세	목사	대학원졸	15년	국내정착 사역, 아동센터, 푸드뱅크 사역
연구 참여자 4	여	57세	전도사	대학원졸	10년	학사운영, 돌봄 사역
연구 참여자 5	남	49세	목사	대학원졸	15년	국내정착 사역, 돌봄 사역
연구 참여자 6	남	49세	목사	대학원졸	25년	국내정착 사역, 돌봄 사역
연구 참여자 7	여	66세	선교사	대학원졸	13년	구출 및 돌봄 사역
연구 참여자 8	남	45세	목사	대학원졸	10년	구출 및 돌봄 사역
연구 참여자 9	남	39세	목사	대학원졸	12년	국내정착 사역, 돌봄 사역, NGO 사역
연구 참여자 10	여	56세	간사	대학졸	8년	구출 및 국내정착 사역
연구 참여자 11	남	39세	목사	대학원졸	3년	국내정착 사역, 돌봄 사역
연구 참여자 12	남	38세	목사	대학원졸	13년	일자리 사역, 성경 사역
연구 참여자 13	남	39세	목사	대학원졸	10년	국내정착 사역, 돌봄 사역
연구 참여자 14	남	47세	선교사	대학원졸	4년	상담, 취업, 돌봄 사역
연구 참여자 15	여	61세	목회자 사모	대학졸	7년	국내정착 사역, 아동양육시설 운영
연구 참여자 16	남	47세	목사	대학원졸	10년	NGO 사역

2.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와의 일대일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다.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수집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였으며, 추가적인 질문을 통한 자료수집이 7월부터 9월까지 있었다. 심층면담은 최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시간에 맞추어 진행하였고, 이를 위해 각 연구 참여자와 1회~3회의 면담을 수행하였다. 소요시간은 1회당 평균 90분~120분이었다. 심층면담 시 질문은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하여 북한이탈주민 사역을 하게 된 동기부터 사역의 과정에서 경험한 일들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면담은 주로 교회 내 소그룹방 등의 조용하고 비밀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진행하였다. 면담 이후 더 필요한 정보가 있을 경우 전화나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하였으며, 중요한 단어나 문장은 간단하게 메모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었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들 간 새로운 속성과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포화상태(Theoretical Saturation)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이 끝난 후 연구자는 24시간 내에 축어록을 전사하였으며, 전사한 자료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며 주요 코드를 추출하고 구체화하였다.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개념화시켜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합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의 순서는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의 순서로 진행되며, 본 연구에서도 이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의 엄격성 및 윤리성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활용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와의 라포(Rapport) 형성이다. 연구자는 Padgett(1998)이 제시한 대로 연구 참여자들과 일 년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며 라포(Rapport)를 형성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본 연구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의 사역현장에 수차례 방문을 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주의 체제의 억압 속에 살았고, 탈북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상처로 사람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 무력감,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결핍이 많은 사람들로 인식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그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본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둘째, 동료지지집단의 활용이다. 동료지지집단은 연구자의 편견이나 오류를 방지하고 독단을 제어하는데 기여하는 것(Lincoln & Guba, 1985)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사회복지 박사과정 지도교수 1인과 북한이탈주민 전문가 박사 1인, 질적 연구방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 1인, 북한이탈주민 사역자 1인으로 동료지지집단을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자료를 개념화,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을 줄이기 위해 동료지지집단의 자문을 받았다. 셋째, 연구 참여자에게 재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연구 수행 시 애매모호하거나 기술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을 단독으로 수행하지 않고 연구 참여자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그들에게 확인을 하는 것(Padgett, 1998)이다. 연구자는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 내용과 관련하여 공개의 정도 등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을 구하였다.

본 연구의 시작 전에 연구 참여자들의 사생활 및 비밀보호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 방법,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설명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면담이 이루어지기 전 연구 참여자에게 설명을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연령, 사역 내용은 기술하였으나, 그 외 성명, 거주지 등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모두 익명으로

표기될 것이다. 둘째, 연구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사역자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이다. 셋째, 면담의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모든 자료들은 연구가 종료된 후에는 파기될 것이다.

III. 연구결과

1. 개방 코딩(open coding)

연구 참여자들의 구술에 의한 원자료(Raw Data)를 줄 단위 분석(line by line analyse)을 하여 개념을 도출하였고, 개념을 다시 공통성, 유사성, 인과성 차원에서 재결집하여 개념보다 좀 더 추상화된 언어로 하위범주를 구성하였으며, 다시 공속성, 추상적 수준으로 통합하여 범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범주는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 현상(phenomenon),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작용/상호작용(action/reaction), 결과(consequence)의 패러다임에 따라 참여자의 경험을 서술하였다. 개방 코딩에서 구성된 개념, 하위범주, 범주는 다음과 같다.

Table 2. The Results of Categorization of Data

패러다임	범 주	하위 범주	개념
인과적 조건	처절한 생존의 삶 옆에 서기	고난으로 물든 삶의 토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남한에서는 한 번도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경험들로 인해 당황함 궁금한 것이 많지만 그들의 상처를 건드릴까봐 질문하는 것도 조심하게 됨
		부적응에 대한 구조적 차원의 이해	늘 서로 감시하고 비판하는 체제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을 공격하는 공격성이 강함 소그룹모임을 하려고 하면 “각”하고 소리를 내고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며 가만히 있지 못함
	인내심의 한계에 봉착	쉽게 배신하는 사람들로 인한 상처	어느 날 갑자기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이들로 인해 상처를 받음 친정엄마처럼 잘 해주었으나 어느 날 말도 없이 떠나는 이들에게 배신감을 느낌
		느린 성장으로 인한 조바심	사역에 온 힘을 쏟지만 그 열매가 없어 삶 자체에 대한 의욕조차 떨어지는 경험을 함 이만큼 양육을 했으면 이렇게 봉사해야지 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맥락적 조건	집단적 배제	남한 사회의 편견	그들을 빨갱이냐 하면서 이념적인 차원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 여전히 그들을 구제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이 있음
		한국 교회의 선입견	끊임없이 쏟아부어야 하는 사역임을 알기에 그들을 피하고 싶은 한국 교회들 북한 동포를 안고 같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한 교회들
	사역 퇴행의 원인들	롤러코스터같이 변하는 남북관계의 영향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 때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불안한 그들을 달래야 함 정치적 문제로 사업 추진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사회적 불안의 투자체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았다 안 좋았다 상황이 널뛰기를 하며 어려움 장애인 사역과 외국인 사역보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역이라고 느낌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한 분열	너무 다른 문화	이들의 문화가 화를 내는 문화이며, 친해지고 편해지면 화를 내는 사람들 시간개념이 없어 약속을 했으나 한 시간 후에 태연하게 나타남
		외국인처럼 느껴지는 동포	생각, 가치관, 표현방법들이 한국 사람과 너무 다름을 느낌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이라고 느낌
현상	소진의 연속인 북한이탈주민 사역	고된 사역으로 인한 심신의 피폐	상처가 많은 이들을 돌보면서 건망증, 신경예민과 같은 병적인 증상이 생김 사역의 스트레스가 쌓여 피부의 껍질이 벗겨짐 고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힘든 상황이 계속되자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재정	몇 개월 착실한 행동을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보증을 서달라고 찾아옴 그들을 만나면서 밥 사주고 필요한 것 사주게 되면서 계속 비용이 들어감 어려운 재정으로 퍼주기만 하는 사역이 어렵기만 함
중재적 조건	하나님이 주신 소명 확인	소명감으로 감당하는 사역	한 명이라도 더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사역함 때로는 죽을 것 같이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감 때문에 사역을 지속함
		부어주시는 하나님 마음	서로 매일 싸우는 그들이 이상하게 예쁘게 보임 힘들어도 그들과 함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고 마냥 행복하여 실없는 농담도 하게 됨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느끼는 사역	힘들지만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새 힘을 주심을 느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성도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됨

중재적 조건	기다리는 사역 능력의 체득	사역보다 먼저 좋은 친구 되어 주기	같이 얘기 해주고 들어주며 친구가 되어줘야 함 좋은 사역자가 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함
		열심보다 '내려놓기'	실망이 될 때는 빨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려고 함 저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도 내려놓기 함
	사역자, 동역자, 공동체는 사역의 삼위일체	동역자의 위로와 힘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동역자와 '함께 함'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게 하는 원동력임 좋은 감시자와 좋은 위로자가 되어 주는 동역자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음	공동체에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함 공동체 없이 개인이 이 사역을 한다면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역임
작용/ 상호작용	재도전을 위한 자기치유	말씀과 기도로 스트레스 풀기	'유모 같은 마음을 가져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감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기도로 그 상황을 넘어감
		힘들 때 사람들과 '거리두기'	너무 힘들 때는 될 수 있으면 그들과 '거리두기'를 함 힘들 때 말과 행동을 잘못하면 엄청난 데미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잠시 멈춤'을 함
	주체적 사역 역량 강화훈련	회복프로그램을 통한 재충전	소진될 때 전문가들이 제공한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함 목회자 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영적 회복의 시간을 가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재단에서 무료로 하는 탈북민 정착지원관리에 대한 교육과정에 참여함 사역 펀딩을 위한 교육이나 단체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여러 번 참여함
	사회적 자원의 동원	사업제안서는 현실적인 행운의 카드	올해 사업제안서를 통해 인건비로 어느 정도 책정할 수 있는 비용을 받음 프로포절을 내서 냉장고, 김치냉장고를 받음
		기부와 후원으로 풍성함을 누리	일주일에 한 번씩 식품이나 의류, 가전 같은 것들을 기부받음 학생들 장학기금 마련해 주는 후원단체들이 꽤 많음
결과	상처 입은 사역자로서의 성장	공감능력이 커진 사역자로 변화됨	회복이후 힘든 상황에 있는 그들을 가슴으로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게 됨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됨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깊어짐	다 쏟아부어 사랑을 해 주고 소진까지 왔으나 보상보다 다시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짐 회복 이후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달라짐
	북한 이탈주민은 통일 동역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투자가 곧 통일 준비	북한에서 온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통일 준비임 남북통일의 가교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보내셨다고 생각함
		복음으로만 남북이 하나 됨	북한과 같은 사회는 제도나 법이 아닌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됨 남북은 서로 불신하므로 복음 안에서만 하나 됨

(1) 인과적 조건

① 처절한 생존의 삶 옆에 서기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 사회에서는 듣기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당황할 때가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한 삶의 이야기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힘겹고 눈물 나는 사연이 많다.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때로 그들과 함께 있는 자체가 힘들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저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이예요. 자기 부모가 죽어서 나가고, 굶어 죽고, 보위부에 끌려가서 생이별하고, 뭐 그런 얘기들 들으면 나는 속이 막 뭐랄까 나이가 막 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다 듣다보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연구 참여자 12)

연구 참여자들은 어려운 삶을 살아온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처음에는 당황이 되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동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며 사역에도 더욱 진지하게 임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이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아픈 삶을 공감하면서 나타나는 부분이므로 ‘처절한 생존의 삶 옆에 서기’로 범주화하였다.

② 인내심의 한계에 봉착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하여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돕는다. 자신의 가족처럼 그들을 돌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한 집에서 가족으로 지내는 연구 참여자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가족과 같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사소한 사건이나 오해로 한순간에 돌아서거나 떠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상처를 받기도 하며 소진을 경험한다. 또한 교회의 리더로 세우기 위해 공동체가 물심양면으로 돕지만 너무도 느린 성장으로 인해 공동체가 지치고 소진될 때가 많다.

그 집에는 친정엄마처럼 집을 다 꾸며주고 했는데 어느 날 말도 없이 떠나 버렸어요. 캐나다로... 그러면서 사역자는 너무 소진이 되는 거야 그런 배신감 때문에...(연구 참여자 10)

한국사람 같으면 뭐 한 1년이면 될 걸 북한 사람들은 10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러냐. 왜 그대로인가?”라고 하죠. 힘든 거죠(연구 참여자 12)

정성을 다해 가족처럼 보살펴 주었으나 사소한 사건으로 떠나는 이들로 인해 사역자들은 상처를 받게 되며, 남한 성도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반면 북한 성도의 성장은 너무도 느린 점 등 사역자들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이에 ‘인내심의 한계에 봉착’이라고 범주화하였다.

(2) 맥락적 조건

① 집단적 배제

남한 사회에는 북한이탈주민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가난하고 못사는 북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으로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들에 대한 정치적인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한국 교회 중에도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을 정치적인 시각과 구제대상으로만 보는 교회들이 있다. ‘연구 참여자 4’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라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탈북민들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인데 차별해서 보는 시각 자체가 그 분들에게 참 뭐랄까 위축되잖아요... <중략> 그 분들도 역시 시대가 그렇게 만들고 자격 없는 나라가 그렇게 만든 거지 그 분들이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막 아니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잖아요?(연구 참여자 4)

대다수 탈북민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돕는 주체로만 생각을 해요. 같은 인격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돕고 있잖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기독교인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16)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느끼는 것은 무시하는 시선과 정치적인 이념으로 보는 시선 등 여전히 부정적이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이해와 포용보다는 일반 국민에게서 느끼는 부정적인 시각을 동일하게 느낄 때가 많다고 한다. 이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와 한국 교회라는 집단 내에서 소외감과 배제를 느끼는 것이므로 ‘집단적 배제’라고 범주화 하였다.

② 사역 퇴행의 원인들

북한 사역은 수시로 변하는 남북관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역이다.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다가도 남북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멈추게 되는 사역이 북한 사역이다. 사역자들은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을 때마다 불안해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담해 주어야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념 양극화로 인한 사회문제로 혼란을 겪는 그들에게 단순한 상담기술로는 접근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기도 한다.

북한사역은 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연구 참여자 16)

1990년대 후반 이후로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북한이탈주민 사역을 한다고 하면 장애인 사역과 다문화 사역보다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다. 남한 사회에서는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이 많다. 남북관계가 좋지 않거나, 사회에서 어떤 정치적 이념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더욱 강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사역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그리기가 아주 어려운 사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것을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정치도 보수와 진보가 있잖아요? 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어? 하잖아요? 뭐 세금을 그 탄데 써?(연구 참여자 7)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역은 남북관계의 영향에 따라 좋아졌다가도 갑자기 나빠질 수 있는 롤코스터 같은 변화가 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을 정치적 이념과 관련하여 보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을 사회적 불안의 투사체로 몰아가려는 경향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사역이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되었던 요소들이라고 보고 ‘사역퇴행의 원인들’이라고 범주화하였다.

③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한 분열

‘연구 참여자 7’은 처음에 북한이탈 청년을 만났을 때 남한 청년들처럼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다가 너무 다른 그들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진 경험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와 언어가 같지만 생각하는 것과 행동들은 많이 다르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을 같은 동포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주민으로 보고 대하는 것이 더 나올 수 있고, 전도의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선교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나올 때가 있다고 한다.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요. 표현하는 방법 음... 또 어떤 일들에 대해 프로세스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냥 말만 똑같은 뿐이지 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더 접근하기 편해요.(연구 참여자 7)

아 이걸 ‘선교’구나... 이들을 이주민의 관점에서 봐야지 안 그러면 이걸 서로가 망하겠구나 생각했죠.(연구 참여자 4)

연구 참여자 중에는 북한이탈주민과 약속을 했지만 1시간이 넘도록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아 힘든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들은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아주 태연하게 “무슨 일이냐”라는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오히려 어리둥절하기도 했다고 연구 참여자는 말한다. 이러한 일은 서로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는 공공장소에 시계가 없는 경우가 많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시계를 차고 다니지 않으며 핸드폰도 없는 사람이 많다. 남한 사회는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회생활의 기본예절로 알고 있으나 북한 사회는 그렇지 않다. 시간개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남북의 다른 문화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한 분들이 북한 분들 때문에 상처를 엄청 받아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떤 분들은 탈북민들이 시간 안 지켰다 이런 말을 쉽게 하거든요. 그런데 안 지키는게 아니라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 잘 지키세요.(연구 참여자 4)

북한이탈주민은 언어만 우리와 같을 뿐이지 생각과 표현방법 등 모든 것이 다르며 외국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와 같은 동포이지만 다른 사회체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가 아주 크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한다. 이러한 문제는 모두 문화적 이질감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한 분열’이라고 범주화하였다.

(3) 현상

① 소진의 연속인 북한이탈주민 사역

연구 참여자 중에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열악한 사역 환경으로 인해 신

체적인 질병이 생겨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건망증과 신경과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연구 참여자도 있고, 사역의 스트레스로 소화불량에 걸린다거나 우울증과 공황장애, 병명을 알 수 없는 병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연구 참여자도 있다. 이러한 병은 사역의 스트레스로 인해 온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사역의 현상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사역임을 알 수가 있다.

고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상황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우울증과 함께 공황장애가 와서 굉장히 힘들었어요.(연구 참여자 9)

북한이탈주민 사역에서 어려운 부분 중 또 하나는 재정문제이다. 그것은 들어오는 재정보다 나가는 재정이 더 많기 때문인데, 북한이탈주민이 잘 정착하여 직장도 자리 잡고 신앙적으로도 성장하기까지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안정될 때까지 사역자는 재정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사역에서 어려운 점은 ‘쉽지 않는 사역’이라는 것이다. 어린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자신들이 퇴근하고 올 때까지 누군가가 자녀를 돌봐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사역자들은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볼 때가 부지기수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부모가 일터로 나갈 때는 그 자녀들을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은 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재정적 필요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긴급한 재정적 필요가 많아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돕거나 가족들을 데려오는 비용이랄지, 같은 북한민 중에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암 수술을 받아야 한다든지 긴급한 재정적 필요를 그때 그때마다 섬기는 것에 한계가 많습니다.(연구 참여자 3)

여기에 와서 주중에는 밤에 부모들 퇴근할 때까지 밤에는 야간돌봄이 선생님들이 계셔서 채용을 해서 이제 야간까지 돌보고, 주말에도 공휴일이면 쉬어야 하는데 사실 일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맡기고 가셔서 어떨 때는 공휴일에도 애들을 몇 명씩 봐야 돼요.(연구 참여자 9)

열악한 사역환경과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이 없이 사역을 해야 하는 쉽지 않는 사역으로 인해 사역자들은 계속 소진하게 된다. 따라서 ‘소진의 연속인 북한이탈주민 사역’이라고 범주화하였다.

(4) 중재적 조건

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확인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과정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상처가 많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지치기도 하며 소진되는 경험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이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감 때문이라고 한다.

오직 그 분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사명감이죠. 계속 부여주시는 사명감.. 그것이 아니었다면 이 사역을 계속 못했을 거예요.. 그 정말 샘물 같은 응원의 힘.. 굉장히 강력한 힘 그 힘이 그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연구 참여자 14)

연구 참여자들은 하나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시 확인하면서 사역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확인’으로 범주화하였다.

② 기다리는 사역 능력의 체득

북한이탈주민 사역을 하는 한국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열심히 섬기지만, 몇몇 교회는 하나의 엑스트라 사역으로 장식처럼 이 사역을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사역을 그저 여러 사역 중 하나로 생각하고 온 힘을 쏟지 않는 것이다. 사역자들도 북한이탈주민을 대할 때 적당한 시간과 거리를 두며 사역을 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사역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과 함께 하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사역이다. ‘연구 참여자 11’은 북한이탈주민 사역은 그들과 함께 밥 먹고 시간을 투자하며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사역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냥 같이 시간 보내고 밥 먹고 오면 기도해주고... 필요할 때 병원 같은데 갈 때 같이 따라가서 수술 한다 그러면 같이 기도해 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프고 힘들 때 같이 해주는 것이죠.(연구 참여자 11)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이탈주민 사역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면 여지없이 그 기대가 무너지면서 소진이 오는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2’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시로 내려놓기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이것까지도 내가 내려놔야겠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수시로 내려놓음이에요.(연구 참여자 2)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이탈주민 사역은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친구가 되어 주는 것’과 내 힘과 열심을 수시로 ‘내려놓기’하며 기다려 주는 사역이라는 것을 점점 배우게 된다. 따라서 ‘기다리는 사역 능력의 체득’이라고 범주화하였다.

③ 사역자, 동역자, 공동체는 사역의 삼위일체

사역자들은 사역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문제가 생길 때 누구에게 가서 따지거나 하소연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할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 사역자들이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같은 사역을 하는 동역자와 공동체가 있는 곳이다. 사역자들은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역자나 공동체에서 나누며 위로를 받기도 하고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이탈주민 사역에 있어서 동역자와 공동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그때 우선은 동역자간에 교제를 해야 해요. 혼자서는 안돼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니 죽을 맛인 거죠.(연구 참여자 11)

제가 힘들면 공동체가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역자는 어쨌든 외로운 포지션인데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이 맞지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그때 다시 깨닫게 된 거죠.(연구 참여자 5)

연구 참여자들은 모든 사역이 그리하지만 특별히 북한이탈주민 사역은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며 동역자와 공동체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이라고 말한다. 북한이탈주민 사역에서 동역자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므로 ‘사역자, 동역자, 공동체는 사역의 삼위일체’로 범주화하였다.

(5) 작용/상호작용

① 재도전을 위한 자기치유

사역의 스트레스는 여러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온다.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항상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야 하고, 또 상황마다 지혜롭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사역자들은 수시로 찾아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우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해결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역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말씀과 기도로 풀 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된다고 고백한다.

일반적으로 내가 경험해 봤던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해볼 수 있는 방향을,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오는 박탈감과 공허함,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거를 뒤집을 수 있었고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었던 거는 사역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말씀과 기도밖에 없겠죠.(연구 참여자 5)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 사역자들은 종종 말과 행동으로 실수를 하기도 한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말실수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때도 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힘들 때일수록 말을 삼가고 행동을 조심하면서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한다. ‘연구 참여자 2’는 사역하면서 힘들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내버려 두면서 ‘잠시 멈춤’을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힘들 때에 내가 잘못 말하거나 행동을 잘못하거나 그러면 그게 엄청난 데미지 효과가 나오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내가 잠시 멈추는 거죠. 너무 힘든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 왜 문제가 있는지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가만히 내버려두고 한동안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좀 안정이 되면 그 때 가서 만나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하고...(연구 참여자 2)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사역 가운데 소진을 경험했다고 했다. 소진이 올 때 말씀과 기도로 재충전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하며 쉬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치유되기도 했으며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재도전을 위한 자기치유’라고 범주화하였다.

② 주체적 사역 역량 강화 훈련

소진이 올 때 잘 쉬는 것은 사역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소진이 온다고 해서 또 마냥 쉬 수 없는 것이 사역자들의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역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소진이 올 때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쉬어야 재충전이 되고 소진에서 회복되는지에 대해 아는 것도 사역자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중에는 전문가들이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전문가들이 제공한 힐링프로그램 같은 것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이 분들은 전문가잖아요?...제가 참여했었는데 프로그램 중에 참여한 사람들은 거의 10년 동안 각자의 영역이 틀린 곳에 살다가 만난 건데...그냥 다른 시간 안 만들어줘도 저녁에 저녁 먹고 티타임하고 그 안에서 너무 무궁무진한 아이디어와 서로 너무 좋은 피드백을 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구요...(연구 참여자 9)

연구 참여자들은 공공기관이나 몇몇 재단에서 진행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고, 사역에 유익한 도움을 얻는 등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거나 자신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므로 ‘주체적 사역 역량 강화 훈련’이라고 범주화하였다.

③ 사회적 자원의 동원

사역자들에게는 사업제안서를 쓰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사업제안서를 낸다고 해서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사업제안서를 통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사역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끊임없이 제안서를 낼 곳을 살피고 부지런히 제안서를 쓰게 된다. 또한 사역의 현장에서 받는 기부와 후원은 사역자에게 큰 힘이 되는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부와 후원이 지속적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사역자들에게 또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때로 기부와 후원으로 누리는 풍성함이 있다고 말한다.

애들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저희가 프로포절을 내서 냉장고, 김치냉장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프로포절을 내서 받았어요.(연구 참여자 15)

사업제안서를 통한 지원이나 기부와 후원 등과 같은 자원은 북한이탈주민 사역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원의 동원’이라고 범주화하였다.

(6) 결과

① 상처입은 사역자로서의 성장

연구 참여자들은 소진에서 회복된 후 북한이탈주민의 아픔을 더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더 살피게 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질보다도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오면 물질로 다 퍼주고 이러면 다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욱하거든요. 우리는 받은 게 없다고... 그래서 진짜 그 사람들의 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헤아려 주고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이만큼 했잖아? 우리 이만큼 했는데 왜 교회 오라는데 안 와? 막 이러거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연구 참여자 9)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면서 결국 소진에 이르게 되지만, 회복 이후 그들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느끼게 된 것이다. ‘연구 참여자 14’는 회복 이후 한 영혼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었다고 한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한 생명을 놓지 않고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많이 축적되었다고 봐요. 넓이는 줄어들었지만 깊이는 더 깊어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더욱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다고 볼 수 있어요.(연구 참여자 14)

소진을 경험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더욱 공감하게 되었으며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사역의 노하우가 생기고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고 고백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상처받는 경험도 많이 하였지만, 그러한 사역의 과정이 결국 사역자 자신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상처 입은 사역자로서의 성장’으로 범주화하였다.

② 북한이탈주민은 통일 동역자

남한 사회는 이제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통일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어울려 살면서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남한 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을 도와야 하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편견을 가지면 안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남한 사회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전달자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북한에 그대로 전달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게 투자하는 것은 곧 앞으로의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남과 북은 사고하는 것이 다르고 차이가 있으므로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연구 참여자 5는 남북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라고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복음통일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통일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갈등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우리가 백신처럼 처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연구 참여자 6)

경제적인 논리나 정치적인 이념보다 더 상위가치가 필요해요...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공통된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건 복음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5)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복음’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은 남과 북을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며, 특별히 복음으로 무장된 북한이탈주민은 국가원수(國家元首)를 우상으로 섬기는 등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오류에 대해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할 남북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동역자로서 우리와 함께 통일을 준비한다는 내용이므로 ‘북한이탈주민은 통일 동역자’라고 범주화하였다.

2. 축 코딩(axial coding)

(1) 패러다임 모형

개방 코딩에서 도출된 범주를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패러다임 모형에 재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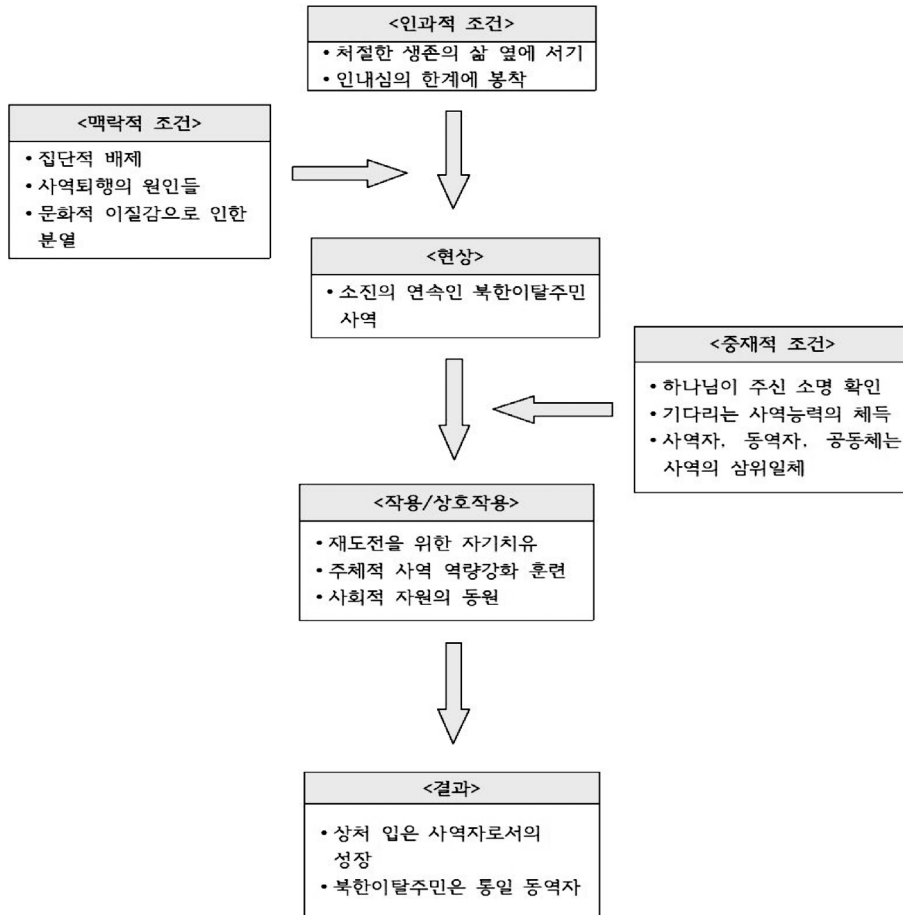


Figure 1. A Paradigm Model on the Ministry Experience of Research Participants

(2) 과정 분석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큰 비전으로 사역을 시작하였으나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 소진의 과정에서 소명을 다시 확인하며 사역을 재조명하는 시간과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러한 시간을 통해 사역의 과정에서 경험했던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단단하게 아물게 되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역자로 성화되어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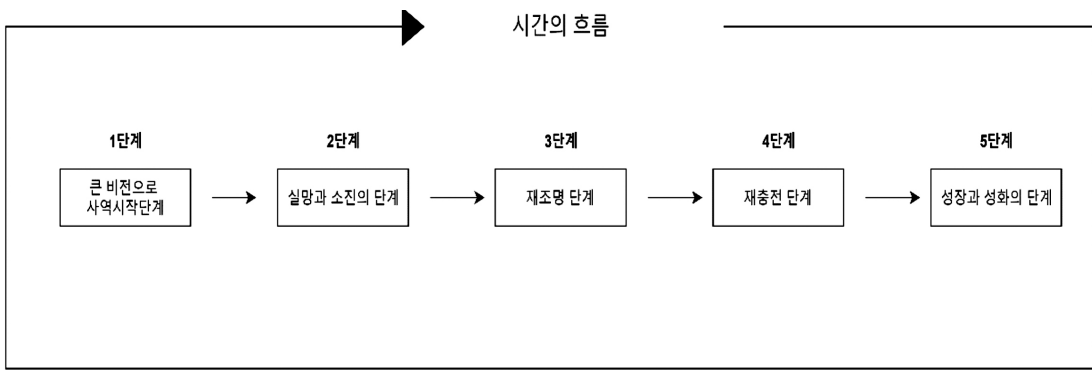


Figure 2. Diagram Describing the Ministry Experience Process of Research Participants

① 큰 비전으로 사역 시작 단계

연구 참여자들은 우연한 기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만나게 되고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던 중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 사역에 대한 소명을 받게 된다. 북한이탈주민 사역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고 재정적으로 풍족한 것도 아니지만, 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북한 동포와 통일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비전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러한 비전으로 사역 시작 단계에 들어선다.

② 실망과 소진의 단계

분명한 비전으로 사역을 시작한 이후 연구 참여자들은 최선을 다해 헌신과 수고를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실망과 소진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상처가 많은 북한이탈주민은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킨다. 거짓말을 일삼고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연구 참여자들을 배신하기도 한다. 사랑으로 섬기며 가르치지만 성장이 너무도 느려 사역자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성장할 때쯤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다. 사역자를 지치게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의 문제도 있다. 북한이탈주민 사역에는 끊임없는 재정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이들은 반듯한 직장이 있는 경우가 드물어 재정적인 독립이 어려운 형편으로 여러 가지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편견으로 가득하다. 북한이탈주민 사역은 많은 관심이 필요한 사역이지만, 장애인 사역보다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약한 것을 보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시간이 흐르지만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점점 실망을 하게 되고,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지속적인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

③ 재조명 단계

실망과 소진의 단계 다음은 재조명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처음 소명을 다시 확인하며 사역을 재조명해 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며 사역의 문제가 무엇이며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 본다. 그러한 점검의 시간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먼저 이 사역은 ‘관계 맺기’가 우선인 사역이며 열매를 기대하기보다는 매 순간 ‘내려놓기’가 요구되는 사역임을 체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동역자,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과 소중함을 깨닫기도 한다. 힘들고 어려운 사역 가운데에서 위로와 힘을 주는 사람들이 동역자이며,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음을 느끼게 된다.

④ 재충전 단계

연구 참여자들은 소명을 확인하고 사역을 재조명하는 단계를 거친 다음 재충전의 단계에 접어든다. 이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소진을 방지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며 자기치유의 시간을 통해 재도전을 준비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더욱 이해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또한 쉬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여 소진을 예방하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또 한 가지는 회복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교육과 훈련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더욱 전문성을 갖춘 사역자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다. 사역의 대상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그들의 느리지만 작은 변화에 보람을 느끼며 소망을 가지게 된다. 이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초창기 가졌던 사역에 대한 비전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진다.

⑤ 성장과 성화의 단계

연구 참여자들의 사역 경험 과정 마지막 단계는 성장과 성화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이 사역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받은 상처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사역의 상황도 좋아진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예전의 그 상처들이 단단하게 아물게 되었으며, 그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 자신이 더욱 ‘성장’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성장’이라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을 더욱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되고, 사역에서도 노하우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마음 밑바닥에 남아 있었던 어떤 권위의식을 모두 버리게 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성장의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그저 인내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남북통일을 함께 준비하는 동역자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3.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

핵심범주(core category)와 이야기 윤곽(story line)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역자의 사역 경험을 살펴보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구성된 핵심범주는 ‘소진의 연속인 사역의 과정에서 재조명과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성장하고 성화되어 가면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삶’으로 나타났다.

‘돌봄’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이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에 이 ‘돌봄’에 대해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가 아무런 대가없이 헌신적으로 돌봐준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며 너희도 이 사람처럼 행하라고 말씀한다(눅 10:25-37).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을 돌보는 연구 참여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북한과 통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고 북한이탈주민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헌신적으로 돌보며 사역을 시작한다. 그러나 사역의 시간이 흐를수록 초창기 가졌던 사역에 대한 비전은 희미해지고 연구 참여자들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치게 된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문제, 재정적인 부담, 사회적 공감대의 미비 등의 원인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 탈북하여 중국이나 제 3국을 거쳐 한국으로 오게 된다. 중국과 제 3국에서 그들은 신분증이 없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엄청난 고난을 겪기도 한다. 그들 중에는 또 다시 잡혀 복송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의 몸과 마음은 점점 병들게 된다. 무사히 한국으로 오지만 북한과 너무 다른 사회체제와 문화 등으로 또 한 번의 큰 혼란을 겪게 된다. 고난과 상처가 많은 북한이탈주민은 그들을 헌신적으로 돕고자 하는 연구 참여자를 믿지 못하고 배신하기도 하며 어려움을 준다.

연구 참여자들은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지치게 되며 정신적, 육체적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 중에는 우울증, 공황장애, 병명이 없는 병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전쟁과 같은 소진의 시간 가운데 연구 참여자들은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또 다른 축복의 기회가 된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통해 처음 소명을 다시 확인하게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

면서 자신의 시각이 점점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헌신했지만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힘들어 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보다는 그들에게 성장을 요구하기만 했던 자신을 깨닫게 된다. 공지영(2004)은 『봉순이 언니』에서 “진짜 사랑한다는 건 내가 주고 싶은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아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정작 북한이탈주민들의 필요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수고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힘들어 했던 것을 뉘우치게 되며, 북한이탈주민 사역은 ‘기다리는 사역’, ‘인내의 사역’임을 깊이 깨닫게 된다. 또한 동역자와 공동체에 대한 시각도 점점 변화된다. 북한이탈주민 사역은 혼자서 결코 할 수 없는 사역이며 동역자와 공동체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재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진 후 연구 참여자들은 소진을 예방하는 방법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사역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게 되면서 어떤 상황에도 적절하게 잘 대처하게 된다. 예전에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상처를 줄까 행동을 조심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고 편하게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러한 변화가 사역의 환경이 좋아졌거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온 것은 아니다. 사실 사역의 현장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재정적인 문제는 늘 사역자 앞에 놓여 있고, 남북관계도 좋았다 좋지 않았다 널뛰기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달라진 점은 연구 참여자들이 북한이탈주민 사역에서 받았던 상처를 안고 계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북한이탈주민을 인격체로 존중하며 한 영혼을 하나님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게 된 것이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아무 대가없이 헌신적으로 돌보 이야기를 하며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당부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계속적으로 소진되는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깊이 깨닫게 되고 아무 대가없이 헌신적으로 약자들을 돌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된다. 이러한 사역자들의 돌봄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남한 사회에 점점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함께 통일을 준비해 가는 동역자가 된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역자들의 사역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 탈북을 한 후 중국이나 제 3국에서 몇 개월간 체류하게 된다.

그때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게 되고 언제 다시 잡혀서 복송될지 모르는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을 보낸다. 그러한 공포의 시간 이후 한국으로 왔을 때에는 ‘내 나라, 내 동포가 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과 너무 다른 남한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또 다른 염려와 불안으로 시간을 보낸다. 이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통일부(2020)에서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직 만족할 단계가 아니라고 조사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을 돕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필요뿐 아니라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한다고 보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육적 구원과 영적 구원이 있는 전인 구원을 추구하는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에 점점 정착하게 되고 도움을 받는 대상에서 함께 통일을 꿈꾸며 준비하는 동역자로 변화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과 사역자가 경험하는 집단적 배제에 대한 논의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한국사회와 한국교회 내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같은 동포로 보기보다 ‘빨갱이’라고 하며 이념적인 시각으로 보거나 그저 우리가 도와야 하는 구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이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시각들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사역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으며, 무엇보다 성경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 통일의 의미를 찾아 이 사역이 보편적인 사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하겠다.

둘째, 동역자와 공동체의 지지에 대한 논의이다.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사역자들에게 동역자와 공동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탈북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을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어야 하는 사역자들은 그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역의 과정에서 계속되는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역자들은 자신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동역자와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도 한다. 동역자와 공동체는 사역을 지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역자는 동역자와 공동체와의 네트워크가 언제든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사역의 재정에 대한 논의이다. 연구 참여자들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대부분 재정문제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자본주의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은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한다거나 재투자를 하기 보다는 수입이 생기면 즉흥적으로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재정적인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의 계속되는 재정적인 요청으로 사역자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재정문제는 곧 사역자의 재정문제와 연결되는 것이므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착지원금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문제의 해결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초기정착지원금에는 정착금, 주거지원금, 취업 장려금 등이 있다. 이러한 지원금의 대부분은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경제개념이 부족한 북한이탈주민은 지원금을 약성 브로커에게 속아 빼앗기기도 하고, 성형수술을 하거나 도박 등으로 소비하게 된다. 초기정착 지원금이 현금이 아닌 현물이나 바우처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사역자 지원 부분에 대한 논의이다. 사역자를 위한 지원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에 비해 사역자에게 특별히 제공되는 지원이나 복지 서비스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사역자들은 지속적인 소진을 경험한다. 이러한 사역자들에게 소진방지를 위한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역 과정에서 건강 문제에 맞닥뜨리는 사역자가 허다하므로 지역의 병원과 연결하여 정기적으로 심리상담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년에 한 번 정도 공공기관 등에서 북한이탈주민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사역자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사역의 열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과 통일에 대한 논의이다. 연구 참여자 중에는 남과 북이 하나로 화합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에 대해 하충엽(2020)은 그동안 분단의 긴 세월로 인해 남과 북에 형성된 서로 다른 정체성 때문이라고 했다. 다르게 형성된 정체성의 문제를 남과 북은 서로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으나, 그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점이 이러한 이유이며, 북한이탈주민을 일선에서 돕고 있는 사역자들이 계속되는 소진을 경험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은 이러한 다른 정체성의 문제를 서로 이해하기보다는 서로를 배제하려는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남북의 하나 됨이 그저 멀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화합과 평화로 이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Volf(1996)는 그리스도인들의 회개, 용서, 포용을 통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가해자 인간에 대해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이으신 것처럼, 기독교는 가해자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를 용서하며 끊임없이 포용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러해야 한다고 말한다. 남북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원리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쪽이 대립하고 갈등을 부추긴다고 해서 같은 방법으로 맞서는 것은 문제의 해결방법이 아닐 것이다. 끊임없는 용서와 포용만

이 관계의 지속성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복음만이 남북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독교 사회복지 사역과 사역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 사회복지의 사역 역량 향상을 위한 영성의 강화이다. 기독교 사회복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영성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Derezotes(2006)는 영성적 사회복지실천은 신체·마음·정신·영이 연결되어 전인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다고 했다. 이현아(2003)는 환경 속의 인간이 가지는 패러다임 안에서 문제를 사정하고 신념을 포함하는 영성이 역량을 강화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다.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역자들에게는 개인의 영성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교계 차원에서도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성경적 세계관과 기독교 사회복지에 관한 강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혹은 신학교의 학과과정에 포함시켜 배우게 함으로써 사역자들의 영성이 실천적 영성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독교 사회복지단체나 기관 그리고 복지 대상자들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사역에 대한 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그동안 북한선교를 위해 중점적으로 해 왔던 사역은 기도와 방송 선교였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로 이주해 오면서 남한 사회가 북한선교의 장이 되었다. 이렇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한국 교회가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여 북한선교가 확장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독교 사회복지 사역자의 소진 예방 및 회복 지원의 확대이다. 사역자를 돕는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서울시 등 몇 개의 도시와 몇몇 재단 등에서 제공하는 소진 예방 프로그램과 회복 프로그램이 있다. 지속적인 소진을 경험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진에서 다시 회복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된다. 따라서 사역자들을 위한 소진 예방 프로그램과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모든 사역자가 이러한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겠다.

넷째, 사역자 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성화이다. 북한이탈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다양한 정보와 자원들의 공급은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사역에서 야기될 수 있는 많은 문제와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역자 간의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더욱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유관기관 및 정부와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다. 민간단체 중에는 기독교 단체가 많기 때문에 정부와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교회가 가지는 종교성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 배제되기도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2019년 7월 서울에서 북한이탈주민 모자 아사 사건이 있었는데, 정부나 공공기관의 사회복지 담당자와 교회와의 교류와 협력이 있

다면 그러한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지역 교회의 사역자들과 공공기관이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방법을 함께 모색한다면 그들의 남한 사회적응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교회의 종교성을 이해하고 대화의 문을 더욱 활짝 열 수 있어야 하겠으며, 교회는 종교성을 강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이웃사랑 측면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는 등 종교성에 대해서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정부와 좋은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돌봄 사역은 돌봄 사역대로, 일자리 사역은 일자리 사역대로, 그 외 다른 사역도 동일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 동일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한다면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고재길 (2017). 남북한의 문화통합과 한국교회의 과제.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 **神學과 宣敎**, 51, 159-193.
- [Koh, J. G. (2017). Cultural integ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task of the Korean church.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Institute of Christian Theology, *Theology and Mission*, 51, 159-193.]
- 공지영 (2004). **봉순이 언니**. 푸른숲.
- [Gong, J. Y. (2004). *Older sister Bongsoon*. Blue forest.]
- 가스펠서브 (2013). **교회용어사전**. 생명의 말씀사.
- [Gospel Serve (2013). *Church Terminology Glossary*. The Word of Life.]
- 남북하나재단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 [South-North Hana Foundation (2019). *A survey on settlement status of North Korean Refugees*.]
- 백남설 (2018).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착지원요인과 삶의 질 요인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선문대학교.
- [Paik, N. S. (2018).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ettlement in Korea of North Korean Refugees: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Settlement Support Factors and Quality of Life Factors*. Doctral Dissertation. Sunmoon University, Cheonan, Korea.]
- 손병덕·신연희·양혜원·이상무·장신재 (2010).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이해와 실천**. 서울: 학지사.
- [Son, B. D., Shin, Y. H., Yang, H. W., Lee, S. M. & Jang, S. J. (2010). *Social Welfare Survey Methodology : Understanding and Practice*. Seoul: Hakjisa.]
- 신문희 (2020). **고학력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 영향 요인: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Shin, M. H. (2020). *Factors affecting long-term tenure of highly educated North Korean Refugee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Doct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안상훈 (2020).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복지태도 차이에 관한 다집단경로분석 연구. **한국사회정책 학회지**, 27(1), 65-87.
- [Ahn, S. H. (2020). A Multi-Group Path Analysis Study on the Differences in Welfare Attitudes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South Korea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Social Policy*, 27(1), 65-87.]

- 양민숙 (2018). **북한이탈여성의 중년기 이후 남한 사회적응에 관한 생애사 연구: Mandelbaum의 분석 방법론 적용**.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Yang, M. S. (2018). *A study on the life history of North Korean refugee women's adaptation to South Korean society after middle age: Application of Mandelbaum's analysis methodology*. Doct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윤혜경 (2015). 다문화사회속의 북한이탈주민과 교회역할 모색. **인천: 개혁주의 생명신학선교학회지**, 1, 175-194.
- [Yoon, H. K. (2015).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 role of the church in a multicultural society. Incheon: *Journal of Reformed Life Theology and Missions*, 1, 175-194.]
- 이빌립 (2017). 해외 탈북자 접근성. **온누리 통일위원회 제3차 통일 세미나집**, 19-30.
- [Lee, B. R. (2017). Accessibi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Overseas. *Onnuri Unification Committee 3rd Unification Seminar Collection*, 19-30.]
- 이상주 (2016). 북한이탈주민정책에 대한 연구 역사적제도론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인간 복지실천학회지**, 16, 237-254.
- [Lee, S. J. (2016). A Study on North Korean Refugees Policy Focusing on Historical Institutional Theory. *Korean Journal of Welfare Practice among Koreans*, 16, 237-254.]
- 이지성 (2019). 한국교회의 북한이탈주민 인식전환에 대한 모색 '공감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 사회윤리학회지**, 45, 95-122.
- [Lee, J. S. (2019). A search for a change in the Korean church's percep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focusing on 'Empathetic Imagination.'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ocial Ethics*, 45, 95-122.]
- 이재서 (2013). **기독교 사회복지의 근원-복지신학으로 가는 길**. 도서출판: 세계밀알.
- [Lee, J. S. (2013). *The Origins of Christian Social Welfare - The Path to Welfare Theology*. Book Publishing: World Milal.]
- 이현아 (2003). 영성과 종교성을 포괄하는 사회복지실천. **교회 사회사업 창간호**, 183-204.
- [Lee, H. A. (2003). Social welfare practice that ncompasses spirituality and religion. *The first issue of Church Social Work*, 183-204.]
- 정인수 (2009). **남·북한 사회통합과 그 과제에 관한 연구: 독일의 사회통합과 새터민의 남한 사회 적응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Jung, I. S. (2009). *A study on social integ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its tasks: Focusing on social integration in Germany and North Korean defectors' adaptation to South Korean society*. Masters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Korea.]

- 조민희 (2019).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방안 연구: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훈련제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Jo, M. H. (2019). *A Study on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Plans in Korean Society: Focusing on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Resocialization*. Doct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조영기·이용환·최창현 (2011). 사회갈등 및 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11), 423-446.
- [Jo, Y. G., Lee, Y. H. & Choi, C. H. (2011). A study on social conflict and integration. *Korean Association of Local Governments*, 2011(11), 423-446.]
- 최은석 (2018).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제도 변천과 사회적응교육의 개선 방향. 북한법연구회, **북한법 연구**, 18, 387-425.
- [Choi, E. S. (2018). Changes in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social adaptation education. North Korean Law Research Society, *North Korean Law Research*, 18, 387-425.]
- 통일부 (2019).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 [Ministry of Unification (2019). *North Korean Refugees Entry Status*.]
- 통일부 (2019). **탈북민 사망 현황 및 연도별 자살률**. 국회보고자료.
- [Ministry of Unification (2019). *North Korean defector deaths and suicide rates by year*. Parliamentary report.]
- 하충엽 (2020). 남남갈등과 남북분단의 관계이름 신학: 미로슬라브 볼프(Miroslov Volf) 신학을 중심으로. **기독교통일포럼**, 93-105.
- [Ha, C. Y. (2020). The Theology of Relational Names of South-South Conflict and the Division of North and South: Focusing on the Theology of Miroslov Volf. *Christian Unification Forum*, 93-105.]
- 한명진 (2020).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정책 고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公法學研究**, 21(1), 3-31.
- [Han, M. J. (2020). A legal and policy consideration for the social integr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focusing on the contents of 「Act on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for North Korean Refugees」. Public Law Study,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Society*, 21(1), 3-31.]
- 한안석 (2018). **한민족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Han, A. S. (2018). *A study on the role of the Korean church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ople*. Doctral Dissertation. Baekseok University. Seoul, Korea.]

- Bemak, F., Chung, R. & Pedersen, P. (2003). *Conuseling Refugees: A Psychosocial Approach to Innovative Multicultural Interventions*. Connecticut: Greenwood Press.
- Derezotes, D. S. (2006). *Spiritually Oriented Social Work Practice*. Boston: Pearson Education.
- Glaser, B. &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Mill Valley, CA: Sociology Rress.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75, CA: Sage.
- Nwadiora, E. & McAdoo, H. (1996). Acculturative Stress among American Refugees: Gender and Racial Differences. *Adolescence*, 31, 480-484.
-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 and Rewards*. Thousand Oaks, CA: Sage.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Volf, M. (1996). *Exclusion & Embrace*. Abingdon Press.
- Yeh, C. (2003). Age, acculturation, cultural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symptoms of Chinese, Korean, and Japanese immigrant youths. *Cultural Diversity & Ethnic Minority Psychology*, 9(1), 34-48.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20). <https://www.humanrights.go.kr/site/main/index001>(검색일 2021.12.27.)
- [Press releas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2020).
<https://www.humanrights.go.kr/site/main/index001>(2021.12.27.)]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검색일 2020.04.08.)
- [Ministry of Legislation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https://www.law.go.kr>(2020.04.08.)]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1A4B210B7890>(검색일 2020.04.08.)
- [Act on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North Korean Refugees.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1A4B210B7890>(2020.04.08.)]

북한이탈주민 대상 기독교 사회복지 사역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A Grounded Theory Study on the Ministry Experience of Christian Social Welfare for North Korean Refugees

김주경 (총신대학교)

손병덕 (총신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사역자의 사역경험을 살펴보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Strauss & Corbin(1998)이 제안한 근거이론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로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사역자 16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자료의 수집은 1:1 심층면담을 통해 구성되었으며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사역경험 과정은 큰 비전으로 사역시작 단계, 실망과 소진의 단계, 재조명단계, 재충전단계, 성장과 성화의 단계로 변화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사역자가 경험하는 집단적 배제, 동역자와 공동체의 지지, 북한이탈주민 사역의 재정, 사역을 위한 지원, 북한이탈주민과 통일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기독교 사회복지에 대한 실천적인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 북한이탈주민, 기독교 사회복지, 사역자, 사역경험, 근거이론 연구